



2026 입학식

지덕배양 초지일관

지난 2월 24일 우리 대학에서 2026학년도 제52회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대학 배양관 예다움홀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유튜브 채널 SUTV를 통해 입학식 행사를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신입생과 학부모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식은 우리 대학의 밴드 동아리인 막내둥이의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후 ▲내빈 입장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내외빈 소개 ▲학사보고 ▲입학허가 ▲신입생 선사 ▲장학 증서 수여 ▲축사

▲축하 공연 ▲서일대학교 사명 선언문 낭독 ▲교가 제창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김정연 학생지원처장이 맡았으며, 학사보고는 윤태복 교무처장, 입학허가는 오선 총장이 담당했다.

오선 총장은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과정 31개 학과의 2,125명과 4년제 학사학위 과정 19개 학과의 425명으로 올해 총 2,550명의 입학에 허가했다. 신입생 선서는 간호학과 장서희 학생이 대표로 진행했으며, 전체 입학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 증서는 수시 전형 전체 수석 부동산법률학과와 조용구 학생과 수시 전형 전체 차석 부동산법률학과 김형복 학생이 차례로 수여했다. 또한 간호학과 장서희 학생이 학과별 수석 60명을 대표해 단상에 올라 자리를 빛냈다. 축사는 노력의 결실을 본 입학생을 축하하고, 학부모들의 헌신적인 지원에 박수를 보내며 오선 총장과 학교법인 세방학원 김명희 이사장 직무대행, 류경기 중랑구청장(영상), 우리 대학 총동



▲ 유튜브 채널 SUTV에서 생중계 한 입학식

문회 최인호 회장이 진행했다.

오선 총장은 “우리 대학은 여러분이 스스로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전공의 전문성은 물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과 윤리를 함께 교육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강의실에서의 배움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현장 실습, 친구들과의 만남과 토론 속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기르길 바란다”라고 격려했으며 “오늘의 설렘과 다짐을 가슴에 새기고 이 캠퍼스에서 여러분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법인 세방학원 김명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여러분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며 “성실은 여러분의 기초가 되고, 배움의 기쁨은 구조가 되고, 섬김의 마음은 완성이 될 것

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려움보다는 도전을, 편안함보다는 성장을, 성취를 넘어 기여를 목표로 삼길 바란다. 멋진 인생으로 가꾸고 즐기고 누리면서 자신과 가족과 이 땅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한다”라며 “여러분의 힘찬 새출발을 위해 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영상을 통해 “서일에서 내일로라는 말처럼 대학생으로서 잠재력을 키워나가고 내일의 큰 꿈을 실현하는 도약의 시간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라며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최인호 총동문회 회장은 “총동문회

역시 여러분이 학업에 전념하고 풍성한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선후배 멘토링, 각종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성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축사 후에는 우리 대학의 합합 동아리 더모스트와 응원 동아리 V.I.C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후 오선 총장과 오성준 총학생회장, 장서희 신입생 대표가 우리 대학 사명 선언문을 차례로 낭독하였으며, 이후 입학식에 참석한 전체 내외빈의 교가 제창과 함께 폐회하며 입학식이 마무리되었다.

우리 대학은 창의, 융합, 인성을 갖춘 자기주도형 인재상을 정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융합형 전문 예술인 양성을 비전으로 삼아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입학식에서 다진 '지덕배양 초지일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의 앞날에 찬란한 성장이 가득하기를 응원한다.

신은선 기자 goldsun052@gmail.com

네 꿈에 비트를, 청년에 기회를

국가장학금!

2026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6. 2. 3. (화) 09시 ~ 3. 17. (화) 18시

※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신청방법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전자서명수단 한 가지 준비
① 공통인증서 ② 금융인증서 ③ 간편인증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누리집 www.kosaf.go.kr **모바일 앱**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신청
'26. 2. 3. (화) 9시 ~ 3. 17. (화) 18시
※ 마감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6. 2. 3. (화) 9시 ~ 3. 24. (화) 18시

✔ 가구원 동의 방법 : 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②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③ 민간사 앱(헬로)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 서류 확인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국가장학금 신청문의** **챗봇상담**

Contents	
1 중	2026 입학식
2 보	2025 졸업식
3 보	1) 카페인의 일상화
7 특	우리 대학 동아리 소개
8 면	소프트웨어공학과 학회장 '박희정', 실내디자인학과 학회장 '윤성진'
인터뷰	

알려드립니다	
• 2월 19일(목) ~ 3월 27일(금) : 1학기 등록 휴학 신청기간	
• 3월 03일(화) ~ 3월 09일(월) : 1학기 전공 및 교양 수강 신청 정정 기간	
[사령] 기자 임명 및 면직	
임명	
편집장 신은선 (미디어출판학과 24학번)	
보도부장 곽서은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25학번)	
취재부장 이준호 (시계임용융합학과 22학번)	
면직	
김가은 (미디어출판학과 24학번)	
김지은 (미디어출판학과 23학번)	
권순현 (정보통신공학과 21학번)	



2025 졸업식

제17회 학사 및 제50회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지난 2월 10일, 우리 대학 교내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 대학 생활을 매듭짓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졸업생을 비롯하여 가족과 지인, 교직원, 지역 내외빈 등 수많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 시작 전부터 배양관 예다움 홀 로비와 캠퍼스 일대는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을 찾은 학부모와 지인들은 준비한 꽃다발을 전달하며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졸업생들은 학위복을 갖춰 입고 캠퍼스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과 현수막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행사를 맞이했다.

본 행사는 국민의례 및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됐다. 뒤이어 내빈 및 학과장 소개가 진행됐으며, 학교와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단상에 올라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창이 수여됐으며, 시상은 ▲교내 전체 수석 ▲구청장상 ▲서영교 국회의원상 ▲학과별 대표자 수상 순으로 진행돼 졸업생 개개인이 재학 동안 기울인 학문적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공인받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후 진행된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은 오선 총장과 각 학과의 학과장으로부터 학위증을 수여했으며, 졸업생들이 단상에 오를 때마다 객석에서는 축하의 박수가 이어졌다.

오선 총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학업의 마침표가 아니라 성숙한 시민이자 전문인



▲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 현장

으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졸업생 여러분의 모습에는 수많은 도전과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격려했다. 또한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은 전공 지식뿐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배웠다”라며 “강의실에서의 배움과 현장에서의 경험들은 앞으로의 삶에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오선 총장은 “정직함, 책임감, 타인을 향한 배려는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며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는다면 어디에서든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은 1974년 개교 이래 반

세기 동안 실용 학문과 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해 왔다”라며 “수많은 선배의 성취 위에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행사는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며 정든 교정을 떠나는 아쉬움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행사장을 나섰다. 이번 졸업식은 단순한 학위 수여의 행정적 절차를 넘어 우리 대학이 지향해 온 교육 철학을 공유하고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졸업이라는 마침표가 곧 또 다른 희망찬 시작임을 알린 이날의 현장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준호 기자 ydd21112@gmail.com

기획보도 1

우리 대학, 데이터 중심 ‘올케어 학사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우리 대학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대학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12일,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 토마토시스템과 협력하여 ‘올케어 학사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인 ‘The Future 2025+’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다.

새롭게 도입될 시스템은 대학 내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실시간으로 목표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 성과관리 체계가 마련되면 제도 및 규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성과 중심의 대학 운영 구조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토마토시스템의 대학 전용 ERP 솔루션인 ‘엑스캠퍼스(eXCampus)’를 비롯해 포털, 싱글사인온(SSO), 설문조사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이 통합 적용된다.

또한 모바일, 이러닝 등 사용자 접점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존 ERP와의 연계 구조를 정교하게 재설계하여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성과관리 환경을 단계적으로 완성할 방침이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 대학이 미래 지향적 디지털 캠퍼스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최용렬 기자 dydfuf123@gmail.com

기획보도 2

‘2025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 포럼’ 개최

전문대학의 교육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포럼’이 지난 1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의 AID 전환·지역 맞춤 혁신의 중심이 되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후원 아래 전국 118개 전문대학 단장단과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혁신지원사업 유공자 및 학생 경진대회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AI 콘텐츠 활용 사례 공유 및 영역별 교육혁신 사례 발표도 이뤄졌다. 또한 캡스톤디자인 전시와



▲ ‘2025 성과확산 포럼’

AI 체험 공간 등 성과 홍보 부스가 운영돼 참석자들이 우수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윤우영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발전재단장은 “지난 2025년은 디지털 전환과 교육 혁신을 위해 모두가 치열

하게 고민하고 실천했던 한 해였다”라며 “이번 포럼은 노력의 결과물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성과 공유의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예혜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국장)은 축사를 통해 “2026년에는 새로 시작되는 AID 중점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의 디지털 혁신을 돕고, 특성화 전문 인력 지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문대학이 지역과 산업을 연결하는 고등직업교육의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교육 혁신 확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곽서은 기자 jssu090918@gmail.com

심층보도



카페인 의 일상화

카페인 의존증 주의보

캠퍼스 내 카페인 섭취가 기호를 넘어 생존을 위한 습관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무분별한 의존이 학생들의 신체 리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

우리 대학의 아침은 캠퍼스 앞 카페의 긴 줄과 함께 시작된다. 한 손에는 전공 서적을, 다른 한 손에는 대용량 커피를 들고 이동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우리 대학의 가장 익숙한 풍경이다. 시험 기간이나 과제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 도서관 책상 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다양한 브랜드의 커피 음료와 에너지 드링크가 놓여 있다. 프랑스 작가 탈레랑은 커피를 “악마처럼 곱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라고 표현했으나, 현재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커피는 낭만적인 기호식품이라기보다 하루를 버티게 하는 생존 필수품의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적인 수치로도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 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카페인 중독을 체감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와 함께 밤을 새우며 과제에 매진하거나, 짧은 휴식 시간마다 카페로 발걸음을 옮기는 학생들에게 커피는 개인의 기호를 넘어 캠퍼스 문화의 거대한 일부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머리가 멍하고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카페인이 일상화된 모습을 고백했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졸음을 쫓기 위해 대용량 커피를 서너 잔씩 마시는 것이 습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다른



▲ 가장 대표적인 커피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학생 역시 “평소에는 하루 2잔 정도 마시지만, 과제가 몰리는 주간에는 고카페인 음료와 섞어 마시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많은 학생이 잠을 깨우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카페인을 찾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약 150mg 내외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 즉, 하루 세 잔의 커피만 마셔도 성인 권고량인 400mg에 육박하게 된다. 우리 대학 캠퍼스 주변에 저가형 대용량 커피 전문점들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한 번에 섭취하는 카페인의 양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

고, 이는 카페인 과다 섭취가 일상으로 자리 잡는 결과를 초래했다.

카페인의 일상화는 학생들의 건강에 경고등을 켜고 있다. 캠퍼스 내에서 만난 많은 학생이 부작용으로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 등을 꼽았다. 한 학생은 “카페인 덕분에 밤을 새울 수는 있지만, 정작 시험 당일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역효과를 경험했다”라고 털어놓았다.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카페인을 찾고, 이것이 수면의 질을 악화시켜 또 다른 피로를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셈이다.

카페인 은 긍정과 부정의 효과를 모두 지닌 물질이지만, 현재 우리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소비 형태는 그 균형을 잃고 지나치게 일상화되어 있다. 무심코 집어 든 커피 한 잔이 개인의 건강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건강한 캠퍼스 라이프를 누리기 위해서는 습관적인 섭취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활력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 차원에서도 학생들이 카페인 의존에서 벗어나 건강한 수면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캠페인과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최용렬 기자 dydfuf123@gmail.com

학생의 목소리

학보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받는 사람: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26학번 신입생분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입시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같이 많은 경험과 추억 쌓아가요!

— 보내는 사람: 익명

받는 사람: 신입생분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어가는 시기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신입생분들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응원과 축하를 받으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을 서일대학교에서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과 무궁무진한 발전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 보내는 사람: 맹성열



교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학보사에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랜덤으로 당첨자를 선별하여 학보에 메시지가 실린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신청은 재학생만 가능하며 받는 사람은 학교 관계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서일학보사 인스타그램(@seoil_press)으로 학과, 학번, 이름, 연락처와 함께 받는 사람,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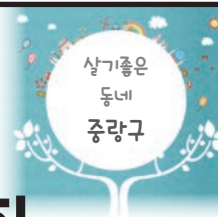
2026년 새로운 목표

2026년 저의 새로운 목표는 스스로 세운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다양한 도전 속에서 빠르게 움직여 왔지만, 때로는 방향보다 속도에 집중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2026년에는 남들의 기준이나 단기적인 성과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원칙을 먼저 세우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선택에 책임지며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신념을 만들어가는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 스마트경영학과 25학번 이강훈

지역사회



중랑구, 우리 대학과 협력 봉제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우리 대학과 협력해 지난 1월 12일부터 2주간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패션디자인 교육'을 운영하며 지역 봉제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교육은 중랑구의 대표 산업인 패션봉제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제품 기획과 디자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봉제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딘 영세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지역 의류제조업체 6곳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 교내에서 진행됐으며, 평일 기준 하루 3시간씩 2주간 운영되는 집중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내용은 현장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편성됐다.

참가자들은 3D 패션디자인 프로그램인 '클로(CLO)'를 활용해 가상 의상 디자인을 살펴보고, 디지털 환경에서 제품을 기획 및 구상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익혔다. 이는 실제 샘플 제작 전 디자인을 미리 구현하고 수정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이끌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봉제업체 종사자들을



▲ 중랑구청 전경

위해 '대학생 멘토링' 방식이 도입됐다. 우리 대학 패션산업학과 재학생 2명이 전담 멘토로 참여해 실습을 돕고, 수업 이해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현장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업체는 신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등 산학 협력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중랑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봉제업체들이 자체 기획력과 브랜드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여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 구 봉제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 및 전문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봉제산업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로서의 의미를 더했으며, 향후 확대 운영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곽서는 기자 jssu090918@gmail.com

서일소식

우리 대학 교육시설 안전인증 심사 최우수 등급 획득



▲ 인증패를 부착하며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우리 대학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 시행한 교육시설 안전인증 심사에서 ▲시설 안전 ▲실내 환경 안전 ▲외부 환경 안전 등 전 분야의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해 최우수 및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1월 8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교육시설의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심사에서 ▲홍학관 ▲호천관 ▲배양관 ▲누리관이 최우수 등급을, ▲세종관 ▲지덕관 ▲서일관 ▲도서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해당 인증은 시설환경의 안정성, 출입 및 이동 환경의 안전 확보 및 관리, 외부 시설의 안전 관리 등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된다.

우리 대학은 개교 50주년을 맞아 세종관과 지덕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강의실과 실습실 등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교육시설 안전인증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선 총장은 "이번 교육시설 안전 인증은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안전 관리와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곽서는 기자 jssu090918@gmail.com

학과 STORY

부동산법률학과

시대가 요구하는 실무형 부동산·법률 전문가의 요람

부동산법률학과는 1978년 지적과로 개설된 후 1984년 부동산과로 운영되어 있었다. 2024년 학과 명칭을 '부동산법률학과'로 변경하였으며, 2021년부터 교육과정 개발 및 3년제 학과로 전환하여 심화한 전공 교육과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했다.

본 학과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흐름에 부응하는 부동산법률실무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과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분쟁과 행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전공 과정에서는 ▲민법 ▲국토 이용 계획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론 등 핵심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실제 판례 분석, 모의 중개 실습, 권리 분석 사례 연구 등을 통해 현장에



▲ 부동산법률학과 학과 소개

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산학 연계 프로그램과 현장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감정 평가 ▲경매 ▲빌딩 관리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에도 유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졸업 후에는 ▲부동산중개법인 ▲감정평가법인 ▲공공기관 ▲금융기관 ▲건설·자산관리 회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부동산과 법률을 아우르는 실무 전문가로 성장하게 된다.

이준호 기자 ydd21112@gmail.com

사설

2026학년도 제52회 입학식 개최

지난 2월 24일 우리 대학이 2026학년도 제52회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배양관 예다움홀에서 진행되었으며, 신입생과 학부모, 교수진 및 내외빈이 참석해 신입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또한, 유튜브 채널 SU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온라인으로도 입학식 현장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식은 우리 대학 밴드 동아리 막내둥이의 공연으로 막을 올렸으며 ▲내외빈 소개 ▲학사보고 ▲입학허가 ▲신입생 선서 ▲장학 증서 수여 ▲축사 ▲서일대학교 사명 선언문 낭독 ▲교가 제창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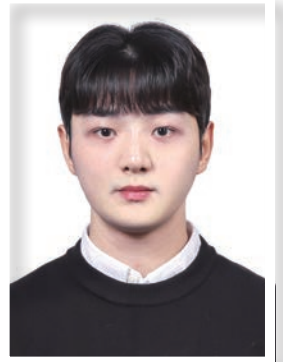
오선 총장은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과정 31개 학과 2,125명과 4년제 학사학위 과정 19개 학과 425명으로 총 2,550명의 입학에 허가했다. 신입생 대표 선서는 간호학과 장서희 학생이 맡았으며,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 증서 수여식에서는 부동산법률학과 조용구 학생, 부동산법률학과 김형복 학생이 수혜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간호학과 장서희 학생이 학과별 수석 60명을 대표해 단상에 올라 자리를 빛냈다. 축사는 오선 총장과 학교법인 세방학원 김명희 이사장 직무대행, 류경기 중앙구청장, 최인호 총동문회 회장이 진행했다. 오선 총장은 스스로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장의 힘을 강조하며, 전공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것을 당부했다. 김명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성실과 섬김의 자세를 바탕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성장을 기원했으며, 최인호 총동문회장은 선후배 멘토링 등을 통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축사 후에는 힙합 동아리 더모스트와 응원 동아리 V.I.C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오선 총장, 오선준 총학생회장, 장서희 신입생 대표의 사명 선언문 낭독으로 입학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제52회 신입생 입학식은 대학의 건학 이념을 되새기고 신입생들의 학업의지를 독려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실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서일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기자칼럼

대학생의 취미

문화부 기자 최용렬



과거 대학생들의 취미 생활은 학과 소모임이나 동아리를 통한 단체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선후배가 모여 운동장을 누비거나 연습실에서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은 대학 생활의 낭만이자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통로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학생들의 취미는 과거보다 개인의 취향이 세분화되고, 생산적인 활동의 성격을 띠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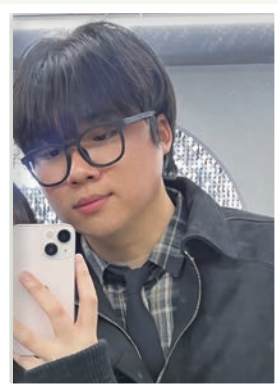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취미가 '자기 계발'과 '성취감'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대학의 한 학생은 "예전에는 공강 시간에 친구들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지만, 요즘은 운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체력 변화를 데이터로 관리하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고 이를 SNS에 인증하며 성취감을 공유하는 문화는 우리 대학 학생들 사이에서도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주류 취미로 정착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답게 IT 기술을 활용한 '생산형' 취미도 두드러진다. 직접 영상을 편집해 업로드하거나 캐릭터 굿즈를 디자인하는 등 창작의 즐거움을 취미로 삼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또 다른 학생은 "취미로 시작한 카드뉴스 제작이나 블로그 운영이 자연스럽게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며 취미가 곧 개인의 역량이 되는 최근의 경향을 설명했다.

일상의 소소한 기록을 통해 만족을 얻는 '기록형' 취미 역시 인기이다. 거창한 준비물 대신 ▲개인 블로그 ▲필름 카메라 촬영 ▲독서 및 전시 기록 등 자신의 일상을 정성스럽게 보관하는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바쁜 학업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캠퍼스 내에서도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며 재충전하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 나가는 우리 대학 학생들의 모습은 캠퍼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건강한 풍속도를 그려내고 있다.

학생칼럼

신입생을 바라보며

AI게임융합학과 유한솔



나는 이제 곧 대학교 3학년에 올라간다. 입학 당시의 설렘과 긴장은 어느새 익숙함으로 바뀌었고, 캠퍼스의 길도, 수업 방식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처음엔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하루의 흐름과 학교의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만큼 시간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내가 서 있는 자리도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 그런 내가 새 학기를 맞아 신입생들을 바라보면, 마치 과거의 나를 다시 보는 것 같아 묘한 감정이 든다. 작은 일에도 설레고, 사소한 선택 앞에서도 오래 고민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신입생들은 종종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어떤 전공이 자신에게 맞는지,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한다. 주변의 기대와 기준에 흔들리며 조급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불안 속에는 아직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숨어 있다. 정해진 답이 없기에, 그만큼 어떤 모습으로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3학년이 된 지금에서야 깨닫게 된 것은 완벽한 길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선택의 반복 속에서 비로소 자신만의 길이 만들어진다. 실패와 후회, 작은 성취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신입생들에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속도를 믿고 하루하루를 쌓아가길 바란다. 그 시간이 모이면, 언젠가 지금의 나처럼 또 다른 신입생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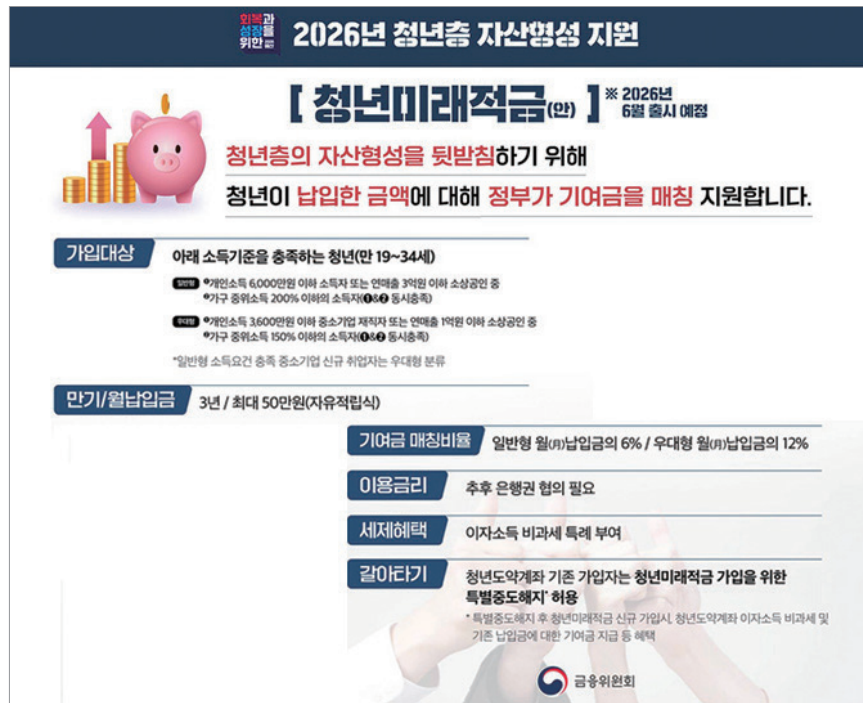
서일만평



경 제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 갈아타기 허용



▲ '청년미래적금'의 안내문

곽서은 기자 issu090918@gmail.com

자산 형성 외에도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책이 병행된다.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연 4.5% 수준의 대출 상품이 신설되며 온라인 기초 재무 진단 서비스도 제공된다. 고금리 시대에 목돈 마련을 희망하는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이번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용렬 기자 dydfuf123@gmail.com

Red Bull Basement 2026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의 아이디어 공모전

 내 용 단순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넘어 최신 AI를 (Red Bull 제작 AI)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의 제품화 단계를 지원 접수기간 2026. 01. 19.(월) ~ 2026. 03. 29.(일) 대 상 만 18세 이상의 성인(2008년 이전 출생자) 신청방법 레드불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디어 원페이지(One-pager) 제출	 기술지원 사이트 내 'Brainstorm together' 탭에서 레드불 자체 제작 AI 툴을 활용에 아이디어 구상 및 문서 작성 도움 가능 문 의 https://www.redbull.com/kr-ko/events/red-bull-basement-south-korea-2026 (홈페이지 참조) 주요사항 모든 제출물은 영문으로 작성
--	---

우승 상금 **\$100,000**

*월드 파이널 우승 시에 해당함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기회!
레드불의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 & AMD**와 함께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AI 툴, 멘토십,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2026년 3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AMD Microsoft studio Red Bull Ventures

특집

26학번 신입생을 위한 동아리 소개

우리 대학의 다양한 동아리

어떤 동아리가 있을까?

SENSATION

‘춤’을 좋아해서 만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HipHop/B-Boy/B-Girl/PopPin/락킹/악킹 등 다양한 장르를 연습하고 공유함으로써 친목·도모를 다지는 힙합 동아리다.

SAM

SAM은 체육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운동하는 종합 스포츠 동아리이다. 헬스, 축구, 볼링 등 각종 운동 이야기를 나누고, 다 함께 즐기며 친목을 도모한다.

유별난 여행

유별난 여행은 우리 대학의 유일한 여행 동아리로 다양한 학년, 과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를 제공한다. 힘든 학교생활 중 즐거운 여행을 다니며 힐링할 수 있는 동아리이다.

RCY

RCY는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봉사 동아리이다. 사랑과 봉사의 적십자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더모스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인 R&B/힙합 동아리이다. 랩, 보컬, 스태프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대에 서보고 싶거나 카메라 촬영, 음향 장비 관리 등의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있다.

V.I.C

V.I.C는 Victory의 앞 세 글자를 따서 지어진 이름이며, ‘나의 사랑과 응원의 열정을 그대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입학식, 체육대회, 축제 등 교내 행사에서 꾸준히 무대를 선보이고 있으며, 연말에는 단독 정기 공연을 진행한다.

컴퓨터닉스

IT 동아리 컴퓨터닉스는 컴퓨터(Computer)와 유닉스(Unix)의 합성으로, 현대 정보 사회에서 컴퓨터에 대한 넓은 지식과 이해,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이다. 컴퓨터, 게임, IT 기업탐방 등 여러 행사 경험을 추진한다.

SISB

SISB는 스케이트보드, 롱보드를 좋아하며 그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이다. 다 같이 보드를 타고, 그에 파생된 다양한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한다.

도시락

도시락은 ‘DO 시(施) 락(樂)’, ‘배움을 즐기자’라는 의미를 가진 봉사 동아리이다.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의 방과 후 활동, 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의료봉사와 재능 기부, 중랑구 관내 경찰서와 협업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형상사진회

형상사진회는 1978년 9월 9일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전통을 자랑하는 뿌리 깊은 사진 동아리이다.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주위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기록해 예술미를 추구한다.

C.C.C

CCC는 우리 대학 중앙동아리이자 전국 320여 개의 캠퍼스에서 2만여 명의 대학생이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동아리이다. 선배를 통해 신앙과 인격의 성장을 위한 성경 연구와 생활 훈련을 받으며, 종교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막내동이

1986년에 창단하여 2014년 현재까지 총 30기수를 배출한 전통 있는 우리 대학의 음악 동아리이다. 매년 정기 공연과 학교 행사 때마다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여 무대를 빛내고 있다.

ART미당

아트미당은 1987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는 견학 동아리이다. 매년 다양한 공연 및 전시회 견학을 다니며 다양한 안목의 함양 및 건전한 교우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학교홈페이지 대학생활란의 동아리 안내에 총 18개의 중앙동아리에 대한 안내가 있으며, 서일대학교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seoiluniversity>) 동아리 소개란에서 자세한 정보와 가입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신은선 기자 goldsun052@gmail.com

독자와 함께 만드는 학내언론

서일학보에서는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서일학보사 홈페이지: 기사제보함

인스타그램: @seoil_press

서일 학보 제작 및 인쇄:
진영DPI (T. 02-2263-3388)



in 순천

대한민국 웹툰 공모대전

총 상금 1억! "기회의 땅 순천으로 초대합니다"

접수기간 : 2026. 3. 25.(수) 00:00 ~ 2026. 3. 31.(화) 24:00

작품요강			
소재, 주제, 장르 무관 ※ 단, 성인물 지원 불가			

참가자격			
19세 이상 예비 창작자(연재 경험 無) 또는 매체 연재 2회 미만인 자			

제출부문			
에피소드 1화(70컷 내외) + 2~3화 콘티 작업물			
* 동시접수 및 심사 기준은 접수일 기준입니다.			
※ 콘티에서는 광고문 하단 광고로 하단부 규격에 맞게 제출 필수			

제출규격			
스크롤뷰 형식의 원고 및 콘티			
- 페이지당 가로 720px, 세로 2,000px 이하, 해상도 72dpi, JPG형식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② 작품 파일(1화 원고 및 2~3화 콘티)		
③ 작품소개서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시상규모 및 특징			
상금	대상	5,000만 원	1명
	최우수상	3,000만 원	1명
	우수상	500만 원	2명
	새로운시선상	300만 원	1명
	창의인재상	200만 원	2명
	입상	100만 원	3명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접수처 : contest@kenaz-re.com (카나즈)	

문의사항	
콘텐츠정책과 콘텐츠산업팀 (061-749-5593)	
케나즈 (010-3602-3728)	




인터뷰 1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연결하다

소프트웨어공학과 학회장 박희정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공학과 학회장 박희정입니다

소프트웨어공학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프트웨어공학과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학과입니다. 전공 수업을 통해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등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초 이론과 함께 팀 프로젝트 및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현장 실무 중심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처리기사 등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웹·앱 개발, 시스템 개발, IT 서비스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학회장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새내기 콤팩트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학회장 임기 시작 이후 처음 맡은 행사였던 만큼 부담도 있었지만, 새로운 학생회 인원들과 함께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 소프트웨어공학과 학회장 박희정

했던 경험이 학회장으로서의 첫 시작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프트웨어공학과 재학생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졸업 작품을 준비했던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약 1년 동안 네 명의 팀원과 함께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발하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느끼고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발표를 마쳤을 때 1년간의 노력을 보상받은 듯한 성취감을 느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생활을 돌아보며, 3년 동안 저희를 훌륭하게 지도해주신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모든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우분들의 앞날에 항상 빛나는 미래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선 기자 goldsun052@gmail.com

인터뷰 2

공간의 가치를 디자인하다

실내디자인학과 학회장 윤성진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내디자인학과 학회장 윤성진입니다.

실내디자인학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내디자인학과는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고 삶의 품격을 높이는 공간 솔루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역량과 기술·예술을 결합한 창의 융합형 감각을 익혀, 실무형 인재로 거듭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학과에서 실내건축산업기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졸업 후 주거 인테리어부터 상업 공간, 브랜딩 디자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학회장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졸업 전시회가 기억에 납니다. 관람객에게 공간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학생회 부원들과 밤낮으로 고민하며 저희만의 색깔이 담긴 전시 공간을 완성했던 과정은 저에게 뜨거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끝까지 힘을 모아준 부원들이 있었



▲ 실내디자인학과 학회장 윤성진

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디자인학과 재학생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격증 취득 집중 기간이 기억에 납니다. 실내건축산업기사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강의실에 모여 도면을 검토하고 어려운 실기 과정을 함께 해결하며 성장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체계적인 특강 덕분에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었고, 모두가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몰입했던 시간이 가장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도 단순히 도면 위에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중한 영감과 추억을 채워가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학할 신입생 여러분! 우리 학과에서 자신의 미래를 멋지게 설계하고 완성해 나갈 주인공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신은선 기자 goldsun052@gmail.com